

2008년 7월 24일 말씀

내가 한국에 왔으니 열심히들 뛰고 달리고 하십시오. 나도 이제 해외 안나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외국에서 20년 채우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최소 70살에 들어 오려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힘내서 모두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관리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배울 것 다 배웁니다. 그러니 관리자들이 열심히 신경 써서 잘 관리해주십시오.

애들이 힘들어한다고 이번에 깨달아 졌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파악해 보니 교회 나오다가 힘들어서 안 나온 사람들 300명 정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쯤은 500명 정도 다시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단체가 크니까 조금 뒤에 처진 사람만 해도 수 백 명, 수 천 명이 왔다 갔다 갑니다. 단체가 크니까 누가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지춘제에 내가 그림을 꼭 출품합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했는데 내 그림이 유명해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안 알아주는데 그쪽에서는 알아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작게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것이 유명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려야 하냐고 기도했더니 구상을 주셔서 그대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야자수 그림만 40년 그렸고 돌 그림 2년 동안 그렸습니다. 소나무는 처음 그려본 것입니다. 꼼꼼하게 그려야 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못 그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 아픈 곳을 고쳤습니다. 지금은 불편한곳 없습니다. 지금은 글 쓰면서 책을 내려고 하니 좀 과로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을 쓰면서 머리에다 외운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때 못쓰면 아까우니까 자꾸 쓰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애들이 얼굴은 뽀뽀하게 하고 다니는데 입에서는 이빨이 다 썩어들어 갑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제 2의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자기 자신이 의사입니다. 양치질도 잘 하면서 본인이 계속 치아관리 잘 해야 합니다.